

몽골인의 과거에서 인류의 미래를 읽는다

《유목민 이야기》 펴낸 김종래씨

몽골에 가면 자신과 꼭 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모두 셋이라는데, 몽골에 그 한 명이 있다고 한다. 드넓은 땅에서 우리와 너무도 닮은 모습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나왔다. 김종래씨(50, 조선일보 기획취재담당 부국장)가 쓴 《유목민 이야기》(자우출판)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유목민에 대해 '역사가 오해한 것들'을 시작으로 '물란의 적은 어디에서 오는가' '위대한 야만인들' 등을 거쳐, 징기스칸의 삶을 추적하고 '유목문명사가 남긴 것'을 헤아린다. 원고지 1천여 쪽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이고, 친구들의 도움과 꾸준한 자료탐색으로 얻은 수많은 사진과 지도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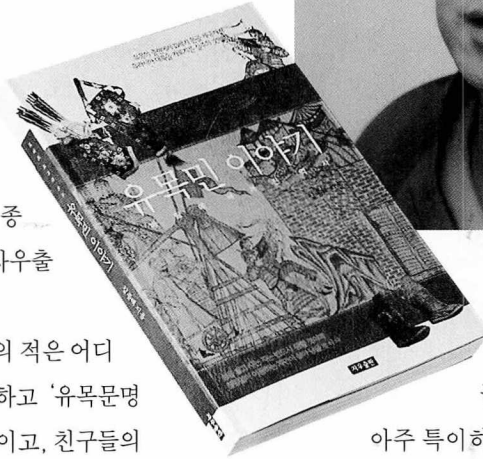
"유목민들은 문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문자로 남기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흔적은 그들과 경쟁하고 갈등한 다른 민족들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료가 없다가보다는 각기 다른 언어로 흩어져 있어 이를 수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김호동 서울대 교수 등 '정신적 스승'이라 칭할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훌륭한 자료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김씨가 몽골에 호기심을 느낀 것은 중학시절부터. 그때부터 '길게 40년, 짧게 3년' 동안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왔다. 그는 지난 1998년 IMF 구제금융기를 맞아 실의에 찬 사람들에게 '꿈'을 선사하고 싶어 《밀레니엄맨》(해냄)을 썼다. 하지만 자료가 부족해 미진한 부분이 많아 아예 새로 쓰기로 작정했는데, 《밀레니엄맨》 다음으로 꼭 3년 만에 이 책이 나왔다. 앞으로 적어도 두 권은 더 쓸 예정인데, 지은이 덕분에 몽골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친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몽골에 접근한 책을 펴낼 것이라고 한다.

"21세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 소재로 몽골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날 21세기는 여러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세계화,



김종래씨
자우출판/A5신/350면/12,000원



정보화, 친환경화는 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21세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그 전에도 세계화, 정보화, 친환경화를 실천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징기스칸과 그 후예들입니다."

몽골인들은 그 옛날 이미 자유무역지대와 역참제로 세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했고,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변화를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효과적으로 자연의 먹이사슬에 편입해 환경친화적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몽골인들의 친환경화에 무게를 실어 설명하는데, 정착민의 '정복'과 유목민의 '경영'으로 나눠 정의한다.

그는 사위가 지평선으로 둘러 쳐진 몽골 대초원에서 "지평선 안에 꿈쩍없이 갇힌 경험"을 했다고 한다. 탁 트여 한없이 자유로울 것 같은 곳에서 오히려 갇혀 있다는 느낌과 무력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울여름 그 막막하고 광활한 곳에 또 갈 것이다. 그곳 사람들이 너무도 궁금하고 보고 싶기 때문이다. -차정신기자

"아직도 아마존에서 책을 사십니까?"

YES24.COM

영미서적은 아마존보다 더 싸게, 일본서적은 기노쿠니야와 손잡고 어떤 도서든 발 빠르게, 인터넷서점 YES24는 번역출판을 위해 원서검토가 필요하신 출판관계자분들께 가장 싸고 빠르게 해외서적을 공급해드립니다. 싸고, 빠르게 - 이것이 바로 경쟁력입니다.

- 더 빨리 - 빠르면 1주, 늦어도 2주안에 출판 담당자분들의 손에 책을 올려놓겠습니다.
- 더 다양하게 - 해외 대형 공급처와의 다양한 거래로 유럽서적을 포함한 450만종에 달하는 해외도서를 물셀 틈 없이 구해드립니다.
- 더 저렴하게 - 해외 배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한 권을 주문하셔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 권을 주문하시면 추가 할인 협의가 가능합니다. 최상의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 더 편리하게 - 각 특판 담당자들이 출판사 관계자분들의 문의에 답하는 것은 물론 사후 관리를 통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문과정에서는 주문하신 서적을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결제하는 후불제가 가능합니다.



영미 도서 상담 및 문의
Tel : 02-578-3581 (140, 141, 219)
Fax : 02-574-9163
E-Mail : foreignbook@yes24.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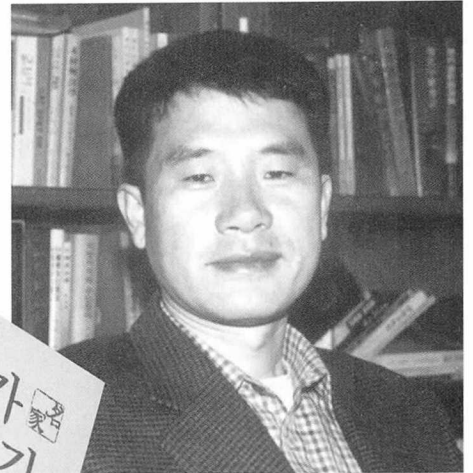
YES24.COM

일본 도서 상담 및 문의
Tel : 02-574-9027
Fax : 02-574-9163
E-Mail : jbook@yes24.com

문화가 사는 인터넷 crese's

명문가에서 이어져온 조선 선비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펴낸 조용헌 교수



조용헌 교수

푸른역사/A5변형/390면/15,000원

파행의 근대사를 헤쳐오며 한집 건너 순국자, 세집 건너 궤멸의 상흔이 새겨진 나라에서 명문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조용헌 교수(42, 원광대 동양학대학원)가 펴낸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푸른역사)의 첫인상이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책이 명문가의 풍수와 건축미학을 넘어 그들의 도덕성과 역사의식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교수는 지배계급의 특권으로만 명문가를 기억하는 한국인들의 의식에서 불필요한 경원을 그만 거둬달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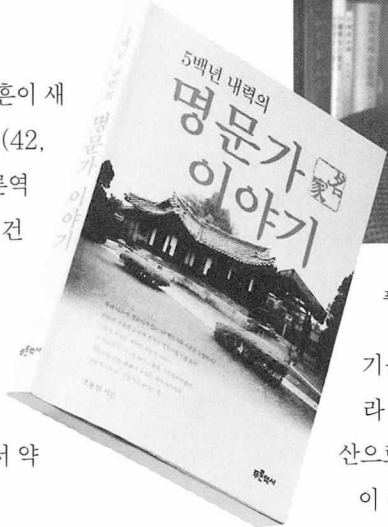
“그 동안 우리는 칭찬에 너무 인색했어요. 이제는 칭찬도 좀 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장점을 부추겨서 약점을 고치는 방법이 바로 칭찬 아닐까요?”

그가 전국 명문 고택 15곳을 찾아 발품을 판 이유는 한국에 진정한 상류층이 없다는 자각 때문이었다. 줄부들이 상류층 행세를 하는 지금 이곳이 답답했다. 그래서 역사 저편이긴 하지만 지조 있게 살다간 정신의 귀족을 찾아 나선 것이다.

“상류층은 부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문제는 '귀(貴)가 없다는 거죠. 귀는 가진 자의 숭선수범에서 생겨납니다. 가진 자는 배풀고 없는 자는 그를 존경하는 것, 이게 안정된 사회이고 제대로 된 사회죠.”

르네상스를 후원한 메디치가 같은 명문가가 우리에게도 있었다. 바로 경주 최부잣집이다. 아흔아홉칸짜리 민간궁궐을 지어놓고 살았던 이들은 그러나 만석 이상으로 재산을 불리지 않았으며, 사방 1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을 대대로 지켜온 명문가였다. 재물과 사람과 문장을 빌리지 않는다는 '삼불차(三不借)'를 370년간 지켜온 지훈 조동탁의 생가 '호은종택'도 꺾이지 않는 품기(品氣)가 대밭처럼 성성한 곳이다.

“사주팔자에 역마살이 두 개나 들어있습니다. 심령술사들은 전생에 제가 산에서 살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산에 올라 바위 같은 데라도 앉았 있으면 몸에 찌릿한



기운까지 돕니다. '마운틴 오르가즘'이라 할까요? 제 꿈이 세간에서 한몫 쟁겨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책에서 눈여겨볼 점은 고택풍수에 대한 조교수의 해박한 풀이다. 배산임수 같은

기본적인 터담기부터 건물의 배치, 문을 내는 방향, 마울 안에 우물을 파지 않고 10리 밖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까지 땅에 대한 조상들의 믿음의 흔적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시골 면장이라도 하려면 논두렁기운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옛말처럼, 명문가가 오랜 세월동안 걸출한 인물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오만으로 지령(地靈)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베푸는 부자들의 역사와 고택풍수의 풍부한 전통을 통해 조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제'다. 그것은 단순한 베품이 아니다. 남을 도와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열정을 말한다. —강성민 기자

헬라스 사상의 심층

박종현 지음/448면/16,000원

이 책은 서양 사상의 뿌리인 헬라스 사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써어졌으며, 특히 플라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내용들을 장장 100여 쪽에 걸쳐 철저히 분석한다. 헬라스 사상의 심층적 이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들의 해결책에 대한 놀라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논어 철학

王邦雄 의 지음/황갑연 옮김/448면/16,000원

이 책은 대만의 문화대학(文化大學) 철학과에 재직했던 교수들이 《논어》에서 철학 사상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엮은 책으로 공자의 근본 정신에 대한 후인들의 잘못된 견해를 교정, 조화 정신의 부활을 통해 현대인들의 편협한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 일체의 조화 정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발전과 경제윤리

황의서 지음/256면/9,000원

이 책은 창조성과 질서는 경제발전을 주관하는 정신적 실체들이며, 경제윤리의 범주 안에 있다는 전제 아래 물질적 풍요로 인한 사회의 타락과 인간성의 상실을 회복하는 대안으로서 경제윤리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윤리는 경제발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820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 924-6161 편집 924-6165 팩스 922-4993

E-mail : phil6161@chollian.net

http://www.seokwangsa.co.kr